

602억 규모 반도체공동연구소 설립 ‘시동’

전북대, 설립추진단 출범… 소재·케미컬·센터 특화 거점센터 목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602억원 규모의 반도체공동연구소 설립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차세대 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17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에는 지난해 공모 선정을 위해 범지역적 협력을 해 온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등 지자체,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그리고 동우화인켐, OCI, 한솔케미칼, KCC, 광전자, 오디텍, P&L Semi 등 도내 우수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전북대 반도체공동연구소는 현 반도체물성연구센터(SPRC) 옆 부지에 들어선다. 올해 설계에 착수해 총 3,800㎡(약 1.150평) 규모의 첨단 복합 연구 인프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400여 평 규모의 클린룸을 비롯해 실험 및 교육 공간이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우수 전문인력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연구소의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전북대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연구와 교육 역량을 집약해 기존 이론 중심 교육을 뒷받침하는 실습형 교육 인



전북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 설립추진단 출범식이 17일 열린 가운데, 양오봉 총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북은 반도체 소재·케미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반도체 센서 산업에서도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연구소 설립은 이러한 지역 산업 강점과 전북대의 연구 역량을 연계해 전북형 반도체 산업 육성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소재·케미컬·센서 기업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 반도체공동연구소는 지역이 보유한 산업 역량과 대학의 교육·연구 자산을 결집해 전북형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차세대 AI 반도체 진화에 대한 교육과 연구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지역발전의 전략적 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커피보다 진한 취업 준비 시작

‘스타벅스-JA코리아와 함께하는 채용설명회’ 개최
도내 직업계고 학생 등 100명 참석… 채용 정보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스타벅스-JA코리아와 함께하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 직업계고 교사 및 학생 100명이 참석한 채용설명회는 현직 스타벅스 매니저들이 ‘Build Success Skills’를 주제로 스타벅스 브랜딩 이해와 현장 경험 공유 △채용 정보 안내 △커피테이스팅 실습 △사회초년생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 등을 진행했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이 실제 기업의 직무 정보와 채용 사례를 통해 취업 진로를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금융 기초 교육을 통해 사회 진입 단계에서 꼭 필요한 역량을 사전에 갖추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참여 학생들은 스타벅스 매니저들의 생생한 현장 사례와 직무 관련 강의 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장은성 기자

깊이 있는 수업 나눔의 장

유·초등 수석교사 수업나눔 콘서트 성료

수업열기·컨설팅 특강·워크숍으로 구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유·초등 수석교사 수업나눔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수석교사가 주도하는 다양한 수업나눔을 통해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공개수업·특강·분임별 실습 등 다양한 교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개념기반 탐구수업 확산을 위해 지난 5~17일 수업나눔 콘서트 주간을 운영했다.

이 행사는 ‘깊이 있는 수업, 본질을 담다’를 주제로 △수업열기 △수업컨설팅 특강 △전체 워크숍으로 구성됐다. 이에 탐구 중심 수업의 다양한 사례를 540여 명의 교직원과 함께 나누는 열띤 토론의 장으로 펼쳐졌다. 특히 ‘수업열기’에는 16명의 수석교

사들이 참여해 각 소속기관(14개 초등학교, 2개 유치원)에서 다양한 교과와 주제를 갖고 교사들에게 수업을 공유하고 사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수업컨설팅단을 대상으로 한 ‘수업컨설팅 특강’은 수업 전문성과 신뢰에 기반한 수업 성장 방안에 대한 연수로 진행됐다.

수석교사 수업나눔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한 전체 워크숍은 이날 전주제계평화의전당 유향검홀 및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술초 강인미 수석교사가 ‘핵심질문과 사고전략으로 깊어지는 개념기반 탐구수업’을 주제로 전체 특강을 가진 데 이어 24명의 유·초등수석교사가 4개 주제, 10개 분임으로 나눠 실습 활동을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발대식이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 윤미연 학운위원장 협의회 회장, 14개 시군 협의회 임원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교육의 든든한 한 축… 전북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발대식

도내 14개 시군 지역협의회 임원진 등 200여명 참여… 새 출범 학운협 시작 축하

전북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발대식이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전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학운협)는 도내 모든 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단체로, 14개 시·군 협의회 회장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도내 14개 시군지역 협의회 임원진을 비롯해 서거석 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과 국주영은·이병철·

한정수·김슬지 도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출범하는 학운협의 시작을 축하했다.

특히 지난 4일 학운위원장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윤미연 회장은 이날 화환 대신 쌀을 받아 초록우산과 지역 장애인 단체인 사단법인 가운길에 전달해 나눔과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윤미연 회장은 “단위학교의 특색과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현을 위해 도내 각 시군협의회 회장

및 학교운영위원장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학부모 및 지역의 목소리를 교육청에 전달하는 등 가고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북교육의 든든한 한 축으로써 내실있는 공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심의·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7일 군산금빛초등학교를 방문한 서거석 교육감이 학생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다.

“모두가 만족하는 놀봄학교 운영”

서거석 교육감, 군산금빛초 방문… 프로그램 직접 참관

서거석 교육감이 17일 군산금빛초등학교를 찾아 놀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놀봄프로그램 수업 참관을 시작으로 △놀봄지원실, 교사연구실 구축 상황 △맞춤형·선택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살펴봤다.

군산금빛초는 과밀 학급 속에서도 대기 학생 없이 선택형(돌봄)프로그램에 전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시니어 인력과 연계한 귀가 지원 체계, 지역사회 탄력성할제와의 협력 등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와 생활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학교 관계자들은 놀봄 학교에서 학생 간 갈등 상황 발생시

대응 체계 마련, 돌봄행정인력 추가 배치, 놀봄지킴이 인력 확대 등 안정적인 놀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했다.

서 교육감은 “학교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제안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놀봄학교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아이들이 꿈을 찾고 삶의 힘을 기르는 미래형 공교육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며 “특히 군산금빛초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인적 자원과 협업체계와 함께 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신현욱 교수

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장상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신현욱 교수가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회장 박경순)로부터 ‘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신 교수의 25년 이상에 걸친 장애인 재활 관련 실천과 학문 연구, 정책 기여,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서비스 확산을 위한 헌신적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에 따르면 신현욱 교수는 국내 장애인 직업재활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고, 이후 미국에서의 박사과정과 귀국 후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직업재활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간 장애인 정책, 직업재활 및 보조공학 분야와 관련해 50여 편의 논문 및 저·역서 그리고 24건의 산학협동 연구과제 및 학술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및 관매시설 평가에 15년 이상 참여해 전국 210여 개소 기관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으며,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시험 출제·검토위원으로서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왔다.

또한, 전주대학교 보조기기센터장 및 전북특별자치도 광역보조기기센터장으로 보조공학서비스 기반 확대에 앞장섰고, 중증장애인생산물 관매시설 및 장애예술인 일자리 정책 평가활동 등 다양한 정부 사업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신현욱 교수는 “지금까지의 활동은 수많은 현장 전문가, 기관 종사자, 정책 실무자들과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직업적 자립을 위한 실천과 연구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2025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진로탐색과 미래직업 역량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교육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25회에 걸쳐 도내 14개 시·군의 공공시설과 체험 공간을 활용해 진행되며, 참여인원은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로체험 활동은 지역 자원과 연계해 △월에 △환경 △다도 △조항 △코딩 △요리 등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체험활동과 연계한 워크북을 제공해 학생들이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 습득 및 직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온라인(<https://m.site.naver.com/1J69S>)으로 개별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에는 학생과 보호자(교사 포함)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장은성 기자

비전대, 뿌리산업 외국인 인력

양성대학 협의회장교로 선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16일 군산 라미다호텔에서 열린 ‘뿌리산업 외국인기술인력 양성대학 협의회’ 출범식에서 백일현 교수(미래모빌리티학과)가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뿌리산업 외국인기술인력 양성대학 12개교가 참여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재원 확보, 산학관 협력체계 강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2026년 사업비 확보, 제도개선 공동대응, 현안 정보공유, 정책 제언 등 실질적 협력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